

김동욱의 고성(孤聲)



## 뒷북 치는 이야기 뉴욕교협에게 바란다

뒷북을 친다고 한다. 이미 끝난 일을 두고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할 때, 그런 행동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다. 내가 오 늘은 뒷북을 치려고 한다. 이런 나의 행동을 두고 혀를 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다. 오늘 내가 하는 이야기에 관심을 들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장로들은 조금 관심을 갖겠지만, 목사들은 씨의 옷가 나 나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할런지도 모른다. 서툰(?)이 좀 길겠다.

차기를 이끌어 갈 뉴욕 교협의 회장단과 감사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임후보 등록을 하라는 공고가 나붙었다. 이번 선거에는 후보 등록비가 인상되었다. 선거에 관련이 있는 규정들이 개정될 조짐도 있다. 개정안이 총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말이 내려는지 모르겠다.

뉴욕 교협 회장단과 감사 선거를 앞두고, 평소 애 가져왔던 생각들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한다.

첫째, 장로 회원이 회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교협은 목사회와는 다르다. 교협은 교회들의 연합체이다. 교협의 회원 중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다. 한데 왜 목사들만 회장이 될 수 있고, 장로들은 회장이 될 수 없는가? 장로 회원이 회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장로가 회장이 되면 협조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란 다. 누가 협조를 안 하는가? 목사들이 협조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목사가 회장을 하면 협조를 하고, 장로가 회장이 되면 협조를 하지 않는 목사라면, 그 목사는 목회를 그만 두는 것이

좋다. 목사 회원들이 원하는 것은 장로 들은 후원금이나 내고, 조용히 있으라는 것이 아닌가? 대단히 은답치 못한 생각이다. 관련 규정들을 개정해서, 장로가 회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교협 회장은, 목사보다 장로가 더 잘할 수도 있다. 목사는 목회 만 해 왔지만, 장로는 훨씬 더 다양한 경험들을 해 왔기 때문이다.

둘째, 회장단의 임기를 2년으로 늘려야 한다. 임기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임기를 1년으로 한 이유가 "그래야 순서가 돌아오니까" 였단 다. 웃기는 이야기다. 잭밤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이야기다. 너도 한번 해야 하고, 나도 한번 하려면, 임기를 짧게 해야 한다는, 발상인 것이다. 임기를 늘려야 한다. 2년도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1년보다는 낫다. 회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서, 임기 동안 뭐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셋째, 상근 사무총장 체제로 교협을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 회장단이 바뀌어도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이 담보 된다. 교협의 업무들 중에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시행착오가 되풀이된다. 회장단이 교체될 때마다 실무 책임자(총무)가 바뀌기 때문이다. 유급 사무총장제를 도입하면, 같은 시행착오가 반복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테니, 처음에는 파트 타임 사무총장제를 도입하면 될 것이다.

넷째, 중경회장들은 "조용한 어른들"로서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 목사들의

모임을 대 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어른들이 너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세를 80 세에 부르 셧다"는 이야기를 전가의 보도처럼 쓰신다. 어른 들이 너무 앞장을 서니까 젊은 회원( 목사)들이 주눅이 들 수 밖에 없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그래서 나서신다고 하시겠지만), 조용히 계시는 것이 좋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회의에 참석하지 마시고,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임기가 끝나면 워싱턴을 떠난다. 현직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목사들이 꼭 배워야 할 덕목이다. 목회에서 은퇴했으면, 시무하던 교회를 떠나는 것이 좋다. 교협 회장을 지냈으면, 교협 근처에는 임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뒷북을 쳤다. 이번에 선출되는 회장단이 앞장을 서서, 위의 네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진진하게 검토해 보길 부탁드린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꼭 해 보길 권 해 드린다. 괜찮은, 아니 썩 좋은 방안 들 일 것이다. ■



김동욱 목사  
뉴욕 코리안 닷 넷 대표

### 행사 게시판

#### | 카네기홀 찬양 대합창제

- 일시: 9월 18일(주일) 오후 8시(7시30분 입장)
- 장소: 카네기홀 아이작 스탠 홀(7번 전철 메인스트리트-퀸즈보로플라자에서 N으로 환승-57St/7AV하차 소요시간 약 40분)
- 참가성가단: 인천장로성가단, 서울장로성가단, 코랄카리스장로합창단, 익산장로합창단, 시카고장로성가단과 프리미스교회연합성가대, 뉴욕권시선교합창단, 뉴욕장로성가단, 미주웨슬리연합합창단, 교회연합합창단,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 등 총 800명
- 티켓: \$20 (입장료 수입금 모두는 국제장애인 선교회(대표 임성숙 회장, 노기송 목사), 뉴욕 나눔의 집(대표 박성원 목사), 뉴저지말말선교단(대표:강원호 목사)을 후원합니다)
- 문의: 뉴욕기독교방송(718-414-4848)

#### | 뉴욕교협 제43회기 정,부회장, 감사 임후보 등록 공고

- 뉴욕교협의 제43회기를 이끌어 나갈 회장과 부회장, 감사에 입후보하실 분들은 다음과 같이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간: 9월 19일-9월 23일(금) 정오 12시 까지
- 등록장소: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사무실 (718-279-1414)

#### | 뉴욕마하나임선교교회 현당예배 및 은퇴예배

- 뉴욕침례교회가 뉴욕마하나임선교교회로 교회 이름을 바꾸고 사요셋에 새성전을 구입하여 현당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일시: 9월 25일(주일) 오후 5시
- 장소: 뉴욕마하나임선교교회(220 Berry Hill Rd., Syosset, NY 11791)
- 516-921-8040 www.nymahanail.com 카네기홀 찬양 대합창제 NY 11358)
- 문의: 718-460-5108/917-727-9926

게시판에서 만남의 광장까지 - **벼룩시장, 일뜰경제의 시작입니다.**

www.FindAllUSA.com

## 벼룩시장

Korean American Times

온 가족이 함께 볼수 있는 **건전한 신문**  
항상 바른길을 생각하는 **정직한 신문**

25년간 지켜온 벼룩시장이  
여러분의 밝은 웃음을 되찾아 드립니다.

저렴한 광고비 • 확실한 광고효과 • 넓은 배포수

게시판 / 부동산 / 구인 / 비즈니스 / 교육 / 물품매매 / 자동차 / 만남의 광장

Korean American Times | T. 718-359-0700, 718-353-3805 | F. 718-353-2881 | 33-70 Prince St. Suite 701, Flushing, NY 11354